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김래용(협성대)

1. 서론

야훼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אֱלֹהֵינוּ הַקָּדוֹשׁ)라는 호칭은 구약에 31번 나타나는데 이사야서에 무려 25번이나 나타난다.¹⁾ 또한 이사야서에 야훼를 대신하는 호칭으로 “그의 거룩하신 이”(הַקָּדוֹשׁ, 사 10:17; 49:7), “야곱의 거룩한 이”(אֱלֹהֵינוּ הַקָּדוֹשׁ, 사 29:23), “너희의 거룩한 이”(אֱלֹהֵינוּ הַקָּדוֹשׁ, 사 43:15), “거룩하신 하나님”(אֱלֹהֵינוּ הַקָּדוֹשׁ, 5:16)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이사야서에서 거룩은 많은 경우에 야훼를

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은 이사야서 밖에 6번 나타난다(왕하 19:22; 시 71:22; 78:41; 89:18[MT 89:19]; 렘 50:29; 51:5). 그리고 이사야서에 25번 나타나는데, 제1이사야에 12번(사 1:4; 5:19, 24; 10:20; 12:6; 17:7; 29:19, 30:11, 12, 15; 31:1; 37:23), 제2이사야에 11번(사 41:14, 16, 20; 43:3, 14; 45:11; 47:4; 48:17; 49:7; 54:5; 55:5), 제3이사야에 2번(사 60:9, 14) 나타난다.

대신하는 호칭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사야서에서 거룩은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형용사 **קָדָשׁ**(카도쉬/거룩한)는 38번 나타나며,²⁾ 이 중에 25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동사 **קָדַשׁ**(카다쉬/거룩하다)는 8번 나타나며,³⁾ 명사 **קֹדֶשׁ**(코데쉬/거룩함)는 23번 나타난다.⁴⁾ 그리하여 로버츠(J. J. M. Roberts)는 이사야서에 하나의 중심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써 야훼의 비전이라고 보았으며,⁵⁾ 오스왈트(John N. Oswalt)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은 “이사야의 신관에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았다.⁶⁾

이사야서에서 특이한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이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5장 16절의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라는 표현에 잘 드러난다.⁷⁾ 잼미(John G. Gammie)는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 모두 정의를 강조하는데, 이들의 차이는 이사야가 정의를 거룩/정결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⁸⁾ 오스왈트는 야훼가 거룩한 분으로 찬양을 받게 된 이유는 야훼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이며, 이런 속성으로 인해 그가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⁹⁾ 이것은 거룩이 정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사야서에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제1이사야에 19번(사 1:4; 4:3; 5:16, 19, 24; 6:3[3번]; 10:17, 20; 12:6; 17:7; 29:19, 23; 30:11, 12, 15; 31:1; 37:23), 제2이사야에 14번(사 40:25; 41:14, 16, 20; 43:3, 14, 15; 45:11; 47:4; 48:17; 49:7[2번]; 54:5; 55:5), 제3이사야 5번(사 57:15[2번]; 58:13; 60:9, 14) 나타난다.

3) 제1이사야에 6번(사 5:16; 8:13; 13:3; 29:23[2번]; 30:29), 제3이사야에 2번(사 65:5; 66:17) 나타난다.

4) 제 1이사야에 5번(사 6:13; 11:9; 23:18; 27:13; 35:8), 제2이사야에 4번(사 43:28; 48:2; 52:1, 10), 제3이사야에 14번(사 56:7; 57:13; 58:13; 62:9, 12; 63:10, 11, 15, 18; 64:9, 10; 65:11, 25; 66:20) 나타난다.

5) J. J. M. Roberts, "Isaiah in Old Testament Theology", *Interpretation* 36 (1982), 131.

6) 존 N. 오스왈트, "이사야서에 나타난 성결", 『성결교회와 신학』 30호 (2013년 가을), 10.

7) 장세훈, "이사야서의 중심 신학: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성서사랑방』 16호 (2001년 여름), 83; 이것은 이사야 1장 16-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결과 정의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8) John G. Gammie,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84.

9) 존 N. 오스왈트, *룻길*, 16.

또 다른 특이점은 이처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거룩과 정의라는 개념이 이사야서의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을 형성하는 각각의 단락의 앞(사 1:21; 10:20)이나 중간(사 4:3; 5:24; 6:3; 8:13) 또는 뒤에(사 1:4, 27; 5:7, 19; 6:13; 9:7; 10:17; 11:9; 12:6) 배치되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거룩과 정의라는 개념이 심판신탁과 구원신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사야의 초기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1-12장을 연구범위로 삼을 것이며,¹⁰⁾ 연구의 목적을 위해 히브리어 미쉬파트(משפט)가 ‘정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락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¹¹⁾

2. 연구사

이사야서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의 관련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거룩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면서 정의를 거룩과 연결시킨 학자들과 반대로 정의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면서 거룩을 정의와 연결시킨 학자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큰 차이가 없다.

로버츠는 “Isaiah in Old Testament Theology”에서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²⁾ 그는 이사야서의 중심 개념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야훼’이며, 이것을 주전 8세기 이사야는 그의 소명환상에서 깨닫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에

10) 일반적으로 이사야 1-39장은 제1이사야로 불리는데, 1-12장은 이사야의 초기 활동, 13-27장은 열방과 관련된 말씀, 28-39장은 이사야의 후기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11) 이사야 1-12장에는 9번의 미쉬파트가 나타나는데, ‘정의’(사 1:17, 21, 27; 5:7, 16; 9:7[MT 9:6]), ‘심문’(사 3:14), ‘심판’(사 4:4), ‘판결’(사 10:2)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12) J. J. M. Roberts, *유허*, 130-143.

서도 신의 실체로서 제시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별히 로버츠는 이사야의 소명환상(사 6장)에 근거하여 야훼의 거룩함에 대한 이사야의 이해에는 윤리적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로부터 정결케 되도록 요구하며,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화하는 심판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캠미는 *Holiness in Israel*에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거룩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한다.¹³⁾ 여기에서 그는 예언자가 거룩과 만나는 가장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것이 정결이며, 이 정결이 얻어질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사회적이며 법적인 정의라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최고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로운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인간의 의로움의 궁극적인 원천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제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보았다.

위의 학자들처럼 오스왈트도 “이사야서에 나타난 성결”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사야서에 26번(야곱의 거룩한 자 포함)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사야의 신에 대한 이해에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았다.¹⁴⁾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과 신의 영역에서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높이 찬양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야훼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라는 점에서 그는 거룩하다고 찬양을 받게 되었으며, 이런 속성으로 인해 그가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지니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정의를 통해 확

13) John G. Gammie, *위클리*, 80-96 참조.

14) 존 N. 오스왈트, *위클리*, 9-39 참조.

인된다고 보았다.

이들과는 달리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은 “Isaiah and the Holy One of Israel”에서 이사야 자신이 이 칭호를 주조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칭호를 그가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¹⁵⁾ 윌리엄슨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은 이사야 시대 이전에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었으며, 이 호칭이 이사야서에 적용되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주전 8세기 이사야는 그의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칭호를 최대 5번 정도 사용하였고, 포로기 이전 혹은 포로기에 이사야서를 확장했던 사람들에 의해 4번 혹은 5번 사용되어졌으며, 그리고 나머지 4번 혹은 5번 정도가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르끌레르(Thomas L. Leclerc)와 그레이(Mark Gray)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면서 거룩에 대해 언급하였다.¹⁶⁾ 르끌레르는 *Yahweh is Exalted in Justice*에서 이사야 1-39장에서 정의와 공의는 이사야 시대의 실질적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야훼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훼의 본성에 관한 존재론적 언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사회구조 속에 정의가 드러나기를 야훼가 원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르끌레르는 정의와 제의는 공생적 관계에 있으며, 진실된 제의는 정의를 행할 때 가능하게 되고, 정의의 근본은 하나님 예배에 있다고 보았다. 특별히 그는 정의와 제의 사이의 일치는 이사야의 소명 환상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사야에게 정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⁷⁾

15) H. G. M. Williamson, “Isaiah and the Holy One of Isra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33 (2001), 22-38 참조.

16) Thomas L. Leclerc,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Solidarity and Conflict in Isa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Mark Gray, *Rhetoric and Social Justice in Isaiah* (New York: T & T Clark, 2006) 참조.

17) Thomas L. Leclerc, *뫼름*, 87-91 참조.

그레이(Mark Gray)는 *Rhetoric and Social Justice in Isaiah*에서 이사야 1장 16-17절과 이사야 58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연구하였다.¹⁸⁾ 그는 이사야가 예배와 사회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유한 이해 속에 ‘정의를 찾으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제의와 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사야 1장 16-17절에서 제의에 대한 관심은 정의 체계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사야 58장은 금식의 종교적 실천을 통해 날마다 ‘야훼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의 임재가 사회적 정의를 찾는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레이는 ‘정의를 찾는 것’이 ‘야훼를 찾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의 학자들은 거룩과 정의의 개념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이 둘의 관계성을 설명하였으며, 이사야서 전체 속에서 이 두 개의 개념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사야 1-12장을 범위로 하여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¹⁹⁾

3.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1) 거룩

이사야 1-12장에는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15번 나타난다. **קָדַשׁ**(카도쉬/거룩한)는 11번(사 1:4; 4:3; 5:16, 19, 24; 6:3[3번], 10:17, 20; 12:6), **קִדְּשׁוּ**(코데쉬/거룩)는 2번(사 6:13; 11:9), **קָדַשׁ**(카다쉬/거룩하

18) Mark Gray, *윗글*, 19-117 참조.

19)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정의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오택현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정의”, 『신학과 목회』 35집 (2011년 5월), 5-29 참조.

게 구별하다)는 2번(사 5:16; 8:13) 나타난다. 그런데 특히 שָׁמַר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야훼의 호칭에 5번 사용되고 있다(사 1:4; 5:19, 24; 10:20; 12:6). 이사야 1-12장에서 거룩과 관련된 단어들은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1) 심판신탁

이사야 1-12장의 많은 부분은 심판신탁을 다룬다(사 1:1-31; 3:1-4:1; 5:1-30; 9:8-10:34).²⁰⁾ 그런데 이 심판신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거룩’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과 함께 여기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거룩은 야훼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이사야 1장의 첫 번째 단락(2-9절)에서 부터 강조된다. 2-4절은 심판의 이유를 다루고, 5-9절은 심판의 내용을 다루는데, 야훼의 첫마디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2a절)는 야훼의 증인 소환이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자 야훼에게 증언할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인 소환 이후에 야훼의 고발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열거된다(2b-4절).

2ba	וְהִם פָּשְׁעוּ בִי
3b	יִשְׂרָאֵל לֹא יָדַע עַמּוֹי לֹא הִתְבּוֹנֵן
4ba	עָזְבוּ אֶת־יְהוָה
4bβ	נֶאֱזַו אֶת־קְדוֹשׁ יִשְׂרָאֵל נִזְרוּ אַחֲרָי

20) 윗글, 10-11 참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7개의 동사(עָשָׂה, 거역하다; לֹא יָדָע, 알지 못하다; לֹא הִתְבּוֹנֵן, 깨닫지 못하다; עָזְבוּ, 버리다; נָאַצוּ, 멸시하다; נָזְרוּ אַחֲרָיו, 멀어지다)를 통해 강조된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성과 야훼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반역의 대상이 2b절에서는 ‘나를’, 3a-b절에서는 ‘주인’, 4b절에서는 ‘야훼’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되며, 특별히 마지막 두 호칭이 병렬(נָאַצוּ אֶת־יְהוָה וְנָזְרוּ אַחֲרָיו || עָזְבוּ אֶת־יְהוָה)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의 반역의 대상이 단순히 ‘야훼’가 아니라 ‘거룩하신 야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²¹⁾ 야훼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거룩은 세속적인 것과의 구별(분리)을 의미한다. 오스왈트는 이러한 구별을 신성에 적용하여, 진정한 신만이 거룩하고 우상들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고 보면서 거룩을 유일신 사상과 연결한다.²²⁾ 이것이 옳다면 4b절의 ‘야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멸시하고 멀어졌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사야서의 첫 메시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룩’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5장 24-25절에 나타난다.²³⁾ 24a절과 25절은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고, 24b절은 심판의 이유를 언급하는데 여기에 ‘거룩’이 사용된다. 24b절은 위에서 언급한 이사야 1장 4b절과 매우 유사하다.

21) 존 N. 오스왈트(윌글, 12)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강력한 자질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22) 존 N. 오스왈트, 『이사야: NIV적용주석』 (장세훈, 김홍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93. 원제는 John N. Oswalt,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2003).

23) H. G. M. William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1-5* (London: Bloomsbury, 2014), 38 참조.

5:24b כִּי מָאֲסוּ אֶת תּוֹרַת יְהוָה צְבָאוֹת וְאֵת אֲמֵרַת קְדוֹשׁ יִשְׂרָאֵל נֶאֱמָרוּ
 1:4b עָזְבוּ אֶת־יְהוָה נֶאֱמָרוּ אֶת־קְדוֹשׁ יִשְׂרָאֵל נִזְרוּ אַחֲרָיִם

위의 두 개의 구절은 유사한 구조와 단어를 지니고 있다. 이사야 1장 4b절은 심판의 이유를 ‘버리다’(עָזַב), ‘떨시하다’(נָאֵץ), ‘떨어지다’(רָדָה)라는 동사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사야 5장 24b절은 ‘버리다’(מָאֵס)와 ‘떨시하다’(נָאֵץ)라는 동사를 사용한다.²⁴⁾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의 호칭에 율법과 말씀이 결합되어 ‘만군의 야훼의 율법’(תּוֹרַת יְהוָה צְבָאוֹת)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אֲמֵרַת קְדוֹשׁ יִשְׂרָאֵל)이 병렬로 배치된다. 이사야 1장에서는 ‘거룩한 야훼’에 대한 반역, 즉 우상숭배를 강조했다면 이사야 5장에서는 ‘거룩한 야훼의 말씀’에 대한 반역과 떨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구조 속에 율법과 말씀을 첨가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충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버렸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율법과 말씀’까지 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룩하신 야훼’를 버리고, ‘거룩하신 야훼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이사야 1장 5-9절과 5장 24a절과 25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심판자는 ‘만군의 야훼’(사 1:9)와 ‘야훼’(사 5:25)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거룩하신 야훼’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10장 17-19절에서는 ‘거룩하신 야훼’가 심판자로 언급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קְדוֹשׁוֹ)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앗수르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앗수르의 심판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것

24) 자세한 논의를 위해 H. G. M. Williamson, *율법*(2001), 28-29 참조.

이다. 이것과 유사한 심판이 이사야 9장 18-19절의 이스라엘 심판에 언급된다.²⁵⁾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자는 ‘거룩하신 야훼’가 아니라 ‘만군의 야훼’로 언급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자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방민족의 심판자로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데 쓰기를 원하지 않는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

둘째, 거룩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사야 5장 8-24절에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6개의 재앙신탁이 나타나는데 (8-10절, 11-17절, 18-19절, 20절, 21절, 22-24절),²⁶⁾ 이 신탁들은 “화 있을진저”(יִי)로 시작한다. 특별히 18-19절에 언급된 세 번째 재앙신탁은 야훼의 계획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거룩이 사용된다. 먼저 18절은 거짓의 끈이나 수레 줄로 죄악 (חַטָּאת עֲוֹן)을 끄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19절은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19a הַמְאֲרִים יְמֵהֶר יְחִישָׁה מַעֲשֵׂהוּ לְמַעַן נִרְאָה
 19b וְחִקְרָב וְחִבּוּאָה עֲצַת קְרוֹשׁ יִשְׂרָאֵל וְנִדְעָה

위의 두 문장은 동일한 구조(당위명령 + 권위명령 + 목적)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백성들의 야훼에 대한 조롱을 잘 드러낸다. 19a 절은 백성들이 야훼를 조롱하는 모습을 ‘그로 서두르게 하라, 그로 그의 일을 서두르게 하라, 우리가 보게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19b절은 ‘서둘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성취되

25) “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짚레와 가시를 삼키며 뻥뻥한 수풀을 살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이 땅이 불타리니...”(사 9:18-19)//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의 가시와 짚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사 10:17-19).

26) Hans Wildberger, *Isaiah 1-1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188-217 참조.

도록 하라, 우리로 알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야훼를 조롱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백성들의 이러한 조롱은 세 개의 ‘서두르다’(קָרַב; עָזַח; מָהַר)는 명령형 동사들과 ‘우리로 보게 할 것이라’(לְמַעַן יִרְאוּ, 9a절)와 ‘우리로 알게 하라’(לְמַעַן יִדְעוּ, 9b절)는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야훼에 대한 백성들의 거만과 냉소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²⁷⁾ 이들은 심판을 행할 능력도 없는 신이 어찌 벌을 줄 수 있냐고 야훼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훼의 권위와 힘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훼를 조롱하는 자들은 이사야가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거룩하신 야훼를 조롱하고 있다. 영(Edward J. Young)은 백성들이 이사야가 사용한 호칭을 사용해 가면서 이사야의 메시지와 그를 풍자한 것은 백성들의 “극악한 악에 대한 하나의 표시”라고 보았다.²⁸⁾ 백성들의 이러한 야훼의 조롱은 이사야 1장 4b절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대한 이러한 조롱과 멸시에 대한 죄악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특별히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이사야의 소명환상에서 거룩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강조된다. 여기에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찬양을 통해 야훼의 거룩함을 강조한다(3절).²⁹⁾ 특별히 세 번의 קָדַשׁ(카도쉬/거룩한)를 사

27) Gene M. Tucker, “The Book of Isaiah 1–39,” Leander E. Keck 외(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6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94.

28) 에드워드 J. 영, 「이사야서 주석 1」(장도선, 정일오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261–262. 원제는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 to 18*, vol 1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5).

29) 김상래, “이사야 6장의 '이상의 현장'(visionary locale)은 어디인가?», 「구약논단」, 25집 (2007년 9월), 40; 박철우, “소명기사(이사야 6장)의 관점에서 재고된 율기 38–42장의 중심내용»,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10–115 참조.

용하여 야훼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한다. 그 이유를 그는 세 가지로 말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눈이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을 “입술이 부정한 백성”(עַמּוּת שִׁפְּתֵי טָמֵאָה)이라고 묘사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그러나 이것을 이사야 5장 19절과 연결시킨다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조롱했던 백성들의 입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입술로 야훼를 찬양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이사야가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며 야훼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을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 1-12장에서 거룩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과 함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구원신탁

거룩은 구원신탁과 관련되어 6번 나타난다(사 4:3-4; 6:13; 8:11-15; 10:20-23; 11:9; 12:6). 여기에서 거룩은 특별히 ‘시온/예루살렘’과 ‘남은 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구원신탁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한다.

첫째, 거룩은 남은 자의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이사야 4장 3-4절에서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거룩은 시온과 남은 자

30) 에드워드 J. 영, *윌클*, 297.

와 함께 나타난다. 먼저 3절은 ‘시온에 남겨진 자(נִשְׁאָרִים),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נִשְׁאָרִים), 예루살렘에서 삶을 위하여 기록된 모든 자들(כֻּלְּמִיִּלְּכָם)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남은 자’를 묘사하기 위해 니팔형 분사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재앙이나 자연 재앙으로부터 생존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과 회복을 위해 선별되어진 자들인 것이다.³¹⁾ 그런데 이렇게 묘사된 남은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³²⁾ 이사야서에서 야훼가 거룩한 자로 불리었는데, 여기에서 야훼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도 거룩한 자들로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온’에 거하는 ‘남은 자’는 ‘거룩하다’는 것이다. 시온이 거룩과 동일시되고, 남은 자가 거룩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4절은 이들이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 그들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³³⁾ 이것은 야훼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거룩이며, 야훼께서 거룩을 최고로 여기신다는 반증이 된다.

둘째, 거룩은 남은 자와 야훼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야훼는 남은 자를 거룩하게 하였다. 이제 거룩한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사야 8장 11-15절과 이사야 10장 20-23절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전자는 남왕국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며, 후자는 북왕국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다.

먼저 이사야 8장 11-15절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11-12절은 시리아-에브라임 연합군에 대한 백성들의 두려움을 다루고, 13-15절은 야훼의 두려움에 관한 이사야의 교훈을 다룬다.³⁴⁾ 전

31) H. G. M. Williamson, *읽기*(2014), 311.

32) 이들은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거룩한 씨(בְּרִית אֱלֹהִים)”로 불린다.

33) 존 D. W. 와츠, 『이사야 1-33』(강철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142-143. 원제는 John D. W. Watts, *Isaiah 1-33* (WBC 24;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5).

34) Marvin A. Sweeney, *Isaiah 1-39* (FOTL 16;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체적으로 이 단락의 메시지는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존하지도 말고, 야훼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룩’이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13절은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는 거룩하게 여길 것이라, 그는 너희의 두려움이다, 그는 너희의 놀라움이다’(אֱתִיְהוָה צְבָאוֹת אֱתוֹ תִקְרִישׁוּ וְהוּא מוֹרְאָכֶם וְהוּא מִזְרָצְכֶם)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너희’는 남은 자를 가리키는데,³⁵⁾ 이들에게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는 만군의 야훼를 거룩한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야훼를 그들의 두려워할 자이며, 놀라워할 자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거룩과 두려움이라는 두 개념이 강조되는데,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거룩이 구별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훼를 거룩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은 야훼만이 특별한 존재이며 특별한 권능과 인품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야훼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력하며 하찮은 분으로 보아 무시한다는 뜻이 된다.³⁶⁾ 이런 의미에서 야훼가 거룩한 분임을 고백한다면 저절로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3절은 거룩을 먼저 언급하고 두려움을 뒤에 언급하는 것이다.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10장 20-23절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북왕국의 남은 자들과 야훼와의 관계를 묘사한다.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יְשָׁרֵי יִשְׂרָאֵל, 20절),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בְּנֵי יַעֲקֹב בְּפָנִי, 20절), “야곱의 남은 자”(יְשָׁרֵי יַעֲקֹב, 21절)로 묘사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야훼의 작정된 과멸에서 살아남은 자들로 간주된다(22-23절). 그런데 이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강조되고 있다(20절).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의 남은 자들

Publishing Company, 1996), 165-168.

35) 송병현. *윳글*, 294-298 참조.

36) 존 N. 오스왈트, 『이사야 1』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274-275. 원제는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1986).

에게 ‘다시는 자신을 친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진실로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해야 한다’(על־מבדו ונסעו על־יהוה קדוש ישראל באמת)와 “다시”(עוד)와 “진실로”(באמת)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는 남왕국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야 할 대상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는데, 여기에서는 북왕국의 남은 자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거룩은 이상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9절에 잘 드러나는데, 이 단락은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3a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이상적인 지도자와 그에게 임할 야훼의 영에 대해 언급하고, 3b-5절은 이 지도자가 기존의 지도자들에게 부족했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한다. 6-8절은 이러한 이상적인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을 취할지를 설명하는데, 약육강식의 원리가 무너진 동물 세계를 비유로 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압제자들과 압제 당하는 자들의 범주가 사라진 평화의 왕국을 그리고 있다.³⁷⁾ 그런데 이 단락의 결론 역할을 하는 9a절은 이제까지 강조된 이상적인 지도자에 의해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동물의 비유를 통해 묘사한 평화의 세계를 “거룩한 산”(הר קדוש), 즉 거룩한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평화의 산’이나 ‘전쟁이 없는 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상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9b절은 이 거룩한 세계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1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37) 김회권은 “이사야는 북왕국의 남은 자들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전망할 뿐만 아니라 촉구하였다”고 보았다. 김회권, 『이사야 1』(성서주석 2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84.

38) 로버트 치즈홀름, 『예언서 개론』(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2), 61-62. 원제는 Robert B. Chisholm,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Co., 2002).

서 망했음을 강조했는데(2-4절), 이사야 11장에서는 거룩한 세계에 거주할 백성들에게 야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거룩한 찬양받을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이사야 12장 6절에서 강조된다. 이사야 12장은 총 6절인데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대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영(Edward J. Young)은 1-2절과 4-5절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말이며, 3절과 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본다.³⁹⁾ 따라서 ‘내가 야훼께 감사할 것이다’(הִתְהַלַּלְתִּי לַיהוָה, 1절), ‘야훼께 감사하라’(הוֹדוּ לַיהוָה, 4절), ‘야훼를 찬양하라’(הִתְהַלַּלְתֶּם לַיהוָה, 5절)는 고백과 다짐은 남은 자들에게 돌려진다. 위의 세 개의 표현은 ‘야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마지막 6절은 찬양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언급한다. 이사야 1-12장의 마지막 절에 찬양의 대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6a צְהִלִי וְרַנֵּי יוֹשְׁבֵי צִיּוֹן
 6b כִּי־גִדּוּל בְּקִרְבֶּךָ קְדוֹשׁ יִשְׂרָאֵל

6a절은 시온의 거주자들에게 크게 외치고 기쁘게 노래하라고 말하며, 6b절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거룩한 하나님은 위대하며,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찬양의 대상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⁴¹⁾

한마디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대한 배신으로 시작했던 이사야 1장과는 달리 이사야 12장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거

39) 에드워드 J. 영, *원글*, 475.

40) 존 N. 오스왈트(*원글*[2015], 345), Hans Wildberger(*원글*, 508), G. M. Tucker(*원글*, 148)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현재의 자리에 배치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보았다.

41) Gene M. Tucker, *원글*, 147.

룩하신 이를 찬양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사야 1-12장의 단락의 처음과 끝에 배치되어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을 전개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정의

이사야 1-12장에는 9번의 미쉬파트(משפחה)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미쉬파트는 ‘정의’(사 1:17, 21, 27; 5:7, 16; 9:7[MT 9:6]), ‘심문’(사 3:14), ‘심판’(사 4:4), ‘판결’(사 10:2)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미쉬파트는 이사야 1-12장에서 **צדק**(체테크/공의)와 한 번(사 1:21), **קצק**(체다카/공의)와 네 번 함께 나타난다(사 1:27; 5:7, 16; 9:7). 여기에서는 미쉬파트가 정의의 개념으로 사용된 단락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심판신탁

정의는 야훼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거룩이 심판의 이유로 사용되었듯이 정의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⁴²⁾ 이것은 심판신탁을 묘사하는 이사야 1장 21-26절에 잘 드러난다. 이 단락은 정의의 부재(21절)→정의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22-23절)→심판을 통한 정의의 회복(24-26절)의 순으로 전개된다. 정의의 중요성이 세 단계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21절은 신실하던 성읍의 죄악을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한다.⁴³⁾ 신실하던 성읍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 그곳이 창

42) 김회권, “이사야의 하나님 결단의 신학: 이사야 6장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5집 (2007년 9월), 27-28.

43) 오택현, 『뜻글』, 13-14.

너처럼 순결을 잃고 살인자들로 가득 찬 성읍이 되었다는 것이다(צדקתך כצדקת עיר אחרת אשר לא ידעתי לה). 정의와 공의의 부재의 문제가 이 단락의 앞에 배치되어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2-23절은 그것들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비리와 약자들에 대한 학대를 예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24-26절은 정의의 부재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야훼께서 심판을 통해 온전히 해결하고 마침내 정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이 단락은 22-23절에 언급된 비리와 약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되풀이 하면서 찌꺼기는 청결하게 씻기고 혼잡물은 제하고(22절, 25절), 재판관과 모사들은 처음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23절, 26절)고 말한다. 이 단락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훼의 심판의 근거가 정의의 부재에 있으며, 야훼가 원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회복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은 이사야 5장 1-7절의 포도원 노래에도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정의의 부재 문제가 마지막절인 7절에 언급된다. 위에서 언급한 단락(사 1:21-26)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마지막 절에 정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⁴⁴⁾ 그리하여 1-6절은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이며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점층법이 사용된다. 야훼의 노력과 기대와 실망과 심판이 단계적으로 묘사된다. 먼저 1a절은 청중의 주의를 이끄는 비유의 도입이며, 2b-3절은 포도원 주인인 야훼의 노력과 기대를 설명한다. 그리고 3-4절은 포도원에 대한 야훼의 실망감을 묘사하고, 5-6절은 그 실망감으로 인한 야훼의 심판을 묘사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묘사 이후에 마지막 7절은 야훼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특별히 7a

44) Gene M. Tucker(윗글, 87-89)는 7절을 이 단락의 결론이라고 보았으며, Marvin A. Sweeney(윗글, 121-124)는 7절을 포도원 비유의 의미에 대한 예언자의 설명이라고 보았다.

절에서 예언자는 비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야훼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리고 7b절에서 예언자는 야훼의 진노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한다.

7b וְיָקוּ לְמַשְׁפַּט וְהָיָה מַשְׁפַּט לְצַדִּיקָה וְהָיָה צַדִּיקָה

이 문장은 아주 특이하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언어유희를 통한 정교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야훼의 분노와 심판의 이유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야훼께서 그들에게 **מִשְׁפָּט**(미쉬파트/정의)를 기대하셨지만 **מַשְׁפָּט**(미쉬파트/살육)을 얻었고, **צַדִּיקָה**(체다카/공의)를 기대하셨지만 **צַדִּיקָה**(체아카/고통의 부르짖음)만을 얻었다는 것이다. **מִשְׁפָּט**와 **מַשְׁפָּט**, **צַדִּיקָה**와 **צַדִּיקָה**와 같은 유사한 발음의 단어지만 정반대의 단어를 사용하여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훼께서 원하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로 인해 포도원이 철저히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정의는 철저히 야훼의 심판의 근거와 분노의 근거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 구원신탁

정의는 야훼의 구원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이사야 1장 27절에 잘 묘사된다. 학자들은 이사야 1장 21-31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단락을 21-26절과 27-31절로 나누며, 특별히 27-28절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⁴⁶⁾ 그러나 내용과 구조

45) Gene M. Tucker, *유태*, 88.

46) 일반적으로 이사야 1장 21-26절은 한 개의 단락으로 분류되고 27-28절은 후대의 첨가로 간주된다. Hans Wildberger, *유태*, 61-62; Brevard S. Childs, *Isaia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로 볼 때 27절은 21-26절과 더 잘 연결되고 있다.⁴⁷⁾ 오히려 27절은 정의의 부재로 인한 심판과 회복을 강조하는 21-26절의 뒤에 놓여 이 단락의 결론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7 צִיּוֹן בְּמוֹשָׁפֶט תִּפְדָּה וְשִׁבְיָהּ בְּצַדִּיקָהּ

여기에서 시온은 21절의 “신실하던 성읍”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돌아온 자들”은 26절의 야훼의 재판을 통해 회복된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⁸⁾ 이렇게 볼 때 27절은 21-26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7절에서 인상적인 것은 ‘야훼에 의한 구속’이라는 표현 보다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통한 구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서는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외도 정의는 미래의 메시아가 지녀야 할 통치 덕목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이사야 9장 2-7(MT 9:1-6)절의 미래의 메시아와 관련된 구원신약에 묘사되고 있다.⁴⁹⁾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3절은 희망의 말씀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출 것이며, 백성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할 것이라고 말한다. 4-7절은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각각의 절은 כִּי(왜냐하면)와 함께 시작한다. 주께서 무거운 멍에와 압제를 깨뜨리고(4절),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전쟁도구들을 불사르고(5절), 한 아기(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6a절)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다.

Knox Press, 2001), 21-22; Otto Kaiser, *Isaiah 1-1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19; Marvin A. Sweeney, *유허*, 87 참조.

47) 김희권, *유허* (2006), 110; 송병현, *유허*, 147 참조.

48) 김희권, *유허* (2006), 110 참조.

49) 이사야 9장 1절과 2-7절 사이의 관련성을 위해 Hans Wildberger, *유허*, 387-389 참조.

특별히 6b절은 이 아기에게 주어진 네 개의 제왕적 호칭(“경이로운 조 언자”[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 의 왕”)을 열거한다.⁵⁰⁾ 그리고 7절[MT 6절]은 이 아기에 대해 보충설명 을 하는데 여기에 정의와 공의가 강조된다.

7a α למַרְבֵּה הַמְּשֵׁרָה וְלְשֵׁלוֹם אֵין-קֵץ וְעַל-כִּפּוֹא דָוִד וְעַל-מַמְלַכְתּוֹ
 7a β -ba לְהַכִּיִן אֹתָהּ וּלְסַעְדָּהּ בְּמִשְׁפָּט וּבַצְדָּקָה מֵעַתָּה וְעַד-עוֹלָם
 7b β קִנְיַת יְהוָה צְבָאוֹת תַּעֲשֶׂה-זֹאת

이 구절은 아기의 정체성과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세 단계로 설명한 다. 7a α 절은 이 아기는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게 될 것이며, 그의 왕권은 계속 확장될 것이며,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을 말한다. 7a β -b α 절은 그는 그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우고 유지 할 것이라고 말한다. 7b β 절은 만군의 야훼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다윗의 자손과 그의 왕권과 나라 가 부흥할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에 기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야훼가 열정을 보이시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단 계의 진술을 통해 저자는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 래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⁵¹⁾

50)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회권, *유태*, 244-249 참조.
 51) 홍성혁, “메시아 예언 본문들에 나타난 ‘살롱(평화)’,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132-141 참조.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1-12장에서 거룩과 정의는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심판신탁에서 거룩은 야훼의 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와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거룩이 사용되고 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구원신탁에서 거룩은 남은 자의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 남은 자와 야훼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남은 자들이 거할 이상적인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그리고 찬양 받을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사야 1-12장에서 정의도 거룩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심판신탁에서 정의는 공의와 함께 야훼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거룩처럼 정의도 야훼의 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정의의 부재가 심판의 원인임을 강조하면서 야훼는 정의의 회복을 위해 심판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포도원의 비유 또한 정의와 공의가 야훼의 심판의 여부를 좌지우지함을 보여준다. 구원신탁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정의와 공의의 부재로 인한 심판을 강조한 야훼는 이제 정의와 공의를 통한 구속을 말한다.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필수 덕목으로 정의와 공의를 제시한다. 정의와 공의를 통한 통치는 끝없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처럼 거룩과 정의는 이사야 1-12장에서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1장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사야 1장은 독자들에게 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

는 서론 역할을 하는데,⁵²⁾ 1-20절은 거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21-31절은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사야 1-12장에서 거룩과 정의가 전체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개하는데 핵심 개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론 역할을 하는 이사야 1장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참고문헌

- 김상래, “이사야 6장의 ‘이상의 현장’(visionary locale)은 어디인가?”, 「구약논단」 25집 (2007년 9월), 30-47.
- 김희권, 「이사야 I」 (성서주석 2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이사야의 하나님 결단의 신학: 이사야 6장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5집 (2007년 9월), 10-29.
- 로버트 치즈홀름, 「예언서 개론」 (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2). 원제는 Robert B. Chisholm,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Co., 2002).
- 박철우, “소명기사(이사야 6장)의 관점에서 재고된 욱기 38-42장의 중심내용”,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94-126.
- 오택현,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정의”, 「신학과 목회」 35집 (2011년 5월), 5-29.
- 장세훈, “이사야서의 중심 신학: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성서사랑방」 16호 (2001년 여름), 82-89.

52) 존 N. 오스왈트, *유틀*(2015), 178;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54 참조.

- 존 D. W. 와츠, 「이사야 1-33」 (강철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원제는 John D. W. Watts, *Isaiah 1-33* (WBC 24;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5).
- 존 N. 오스왈트, 「이사야: NIV적용주석」 (장세훈, 김홍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원제는 Oswald, John N.,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존 N. 오스왈트, “이사야서에 나타난 성결”, 「성결교회와 신학」 30호 (2013년 가을), 9-39.
- 존 N. 오스왈트, 「이사야 I」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원제는 John N. Oswald,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1986).
- 에드워드 J. 영, 「이사야서 주석 1」 (장도선, 정일오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원제는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 to 18, vol 1*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5).
- 홍성혁, “메시아 예언 본문들에 나타난 ‘살롬’(평화)”,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121-152.
- Childs, Brevard S., *Isaia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Gammie, John G.,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Gray, Mark, *Rhetoric and Social Justice in Isaiah* (New York: T & T Clark, 2006).
- Kaiser, Otto, *Isaiah 1-1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 Leclerc, Thomas L.,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Solidarity and Conflict in Isa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Roberts, J. J. M., "Isaiah in Old Testament Theology", *Interpretation* 36 (1982), 130-143.
- Sweeney, Marvin A., *Isaiah 1-39* (FOTL 16;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 Tucker, Gene M., "The Book of Isaiah 1-39," Leander E. Keck 외(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6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27-305.
- Wildberger, Hans, *Isaiah 1-1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Williamson, H. G. M., "Isaiah and the Holy One of Isra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33 (2001), 22-38.
- Williamson, H. G. M.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1-5* (London: Bloomsbury, 2014).

검색어

이사야 1-12장

거룩

정의

공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Holiness and Justice in Isaiah 1-12

Rae-Yong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holiness and justice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se two in Isaiah 1-12.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language, structure, and syntax of each of the units where these two terms occur in Isaiah 1-12.

In Isaiah 1-12, holiness and justice play important roles in the judgment oracles and in the salvation oracles alike. In the judgment oracles, in particular, both holiness and justice are employed in justification of the Lord's judgment upon his people. Furthermore, holiness is used to explain or describe the reasons for God's judgment on his people and the sins that the people committed against their neighbors or against God. In the salvation oracles, holiness is used

www.kci.go.kr

to describe the identity of the remn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mnant and God, the ideal world in which the remnant will reside in the future, and an object whom the remnant will worship.

Justice, which occurs with righteousness in Isaiah 1-12, is also used to explain the reasons for God's judgment on his people. Here, justice and righteousness play very similar roles as holiness does. Absence of justice from them is a reason for God's judgment upon his people, and God passes judgment upon them in order to restore justice to them. In the salvation oracles, it is emphasized that salvation is due to both justice and righteousness and that they are very important virtues that the future Messiah should hav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e useful for those who read and study Isaiah 1-12 to understand it better.

Keywords

Isaiah 1-12

holiness

justice

righteousness

the Holy One of Israel

- 투고일: 2016년 4월 16일
- 심사일: 2016년 4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9일

www.kci.go.kr